

東醫寶鑑 精門과 氣門의 經穴 선택에 대한 형상론적인 연구

김경철* · 박용환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 한의학 연구소

Study on 'Hyung-Sang' Theory of Acupuncture Points in Each Chapter on 'Jung' and 'Ki' in Dong-Eui-Bo-Gam

Gyeong-Cheol Kim*, Yong-Whan Park

Department of Diagnostics ·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First, we analyze the contents of Dong-Eui-Bo-Gam. Second, from the view of the 'Hyung-Sang(形象:body form)' theory, we try to interpret the acupuncture points chosen in each chapter with a base on the contents of the book. We study on the on 'Hyung-Sang(形象: body form)' theory of acupuncture points in each chapter on 'Jung(精)' and 'Ki(氣)' in Dong-Eui-Bo-Gam(東醫寶鑑). The acupuncture points on epilepsy in 'Jung(精)' chapter are come from the purview of 'Jung(精)' type, man and 'Shin(神)' type. In the cade of hypochondria, it is often considered 'Ki(氣)' type and 'Shin(神)' type. The acupuncture points on all kind of Ki(氣)-desease are come from the purview of the point of 'Ki-Hae(氣海)'. The acupuncture points on congestion of the head are come from the purview of indigestible type or weak type of person and woman, and the acupuncture points on 'belch' are come fom the purview of 'Ki(氣)' type and 'Shin(神)' type. The acupuncture points on polypnea are come from the purview of having phlegm, weak type, and long necked type.

Key words : Jung(精), Ki(氣), Hyung-Sang(形象: body form), Dong-Eui-Bo-Gam(東醫寶鑑)

서론

韓醫學은 診斷을 통한 辨證을 거쳐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치료 방법은 크게 藥과 鍼灸로 대별된다. 診斷의 방법은 望, 問, 聞, 切의 다양한 방법이 쓰이게 되고 이를 통한 정보를 학과 마다의 논리로 해석을 한다.

한국에서는 東醫寶鑑의 뒤를 이어 東武의 四象醫學과 芝山の 形象醫學이 등장하여 진단과 치료의 방법론을 크게 번창시켰다.¹⁾ 특히 望診 중심의 영역을 확대시킴으로써 辨證施治의 전통을 살리고 있다. 하지만 方劑의 면에서는 임상에서 이론과 실재를 연계하여 큰 쓰임새를 보고 있으나, 鍼灸 치료에 있어서는 연구와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四象體質에 따른 鍼灸法 考察^{2,3)}, 形象針法 研究^{4,5)}, 八象體質針法⁶⁾ 등이 있으나, 기존 침법의 비판이나 形象理論의 장황한 설명이나 五輸穴에서의 적용에 한계를 가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저자는 形色脈症의 합일을

통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辨證施治의 정통적인 정신에 의거하여 形象에 따른 經穴 선택과 자침 방법 연구의 일환으로 東醫寶鑑에 나타나는 경혈 선택에 대하여 形象論적인 해석을 하고자 精門과 氣門의 침구 부분을 연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東醫寶鑑의 精門과 氣門의 끝에 있는 鍼灸편의 내용을 조사하여 증상별로 제시하고 이들 經穴의 특성⁷⁾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론에서 東醫寶鑑의 본문 내용을 분석하고 經穴 선택의 과정을 논의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形象論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대상에게 選穴을 한 것일까에 대한 해석을 시도 하였다.

形象論은 芝山이 창시한 韓醫學적 방법론으로, 形, 色, 脈, 症을 합일하여 變證하고 治療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⁸⁾ 특히, 각 대상마다 나타나는 특징을 중요시하여 이를 望診법⁹⁾에서 응용한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는 “사람에 따라 形과 色이 다르고 장부도 다르므로 외부 증상은 비록 같다고 하더라도 治法은 사람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⁷⁾고 한 手段階의 말처럼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마다 治療法 또한 틀려야 한다는 점을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choiyh@deu.ac.kr, · Tel : 051-850-7413

· 접수 : 2005/05/31 · 수정 : 2005/06/29 · 채택 : 2005/07/28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形象論에서는 대상을 파악하는 몇 가지 용어를 만들어서 쉽게 파악이 되도록 하였다.

臍體와 膀胱體¹⁰⁾는 인체를 음양적인 측면으로 나눈 개념이다. 男女老少는 보편적으로 아는 분류이다. 精氣神血¹¹⁾로 나누는 科라는 분류는 얼굴의 전체 틀을 보고서 나눈 개념이고, 走鳥魚甲¹²⁾으로 나누는 類는耳目口鼻의 상태를 보고 나눈다. 六經形¹³⁾은 눈과 코의 상태를 보고서 나누는 분류 방식이다.

연구자료

1. 精門

1) 遺精 夢泄 心俞 白環俞 膏肓俞 腎俞 中極 關元 等穴 或鍼或灸.

心俞 : 太陽膀胱 心俞 養心安營 清神寧志 調理氣血¹⁴⁾

白環俞 : 太陽膀胱

膏肓俞 : 太陽膀胱 補肺健脾 益氣補虛 治癆益損 寧心培腎

腎俞 : 太陽膀胱 腎俞 滋補腎陰 振氣化 祛水濕 強腰背 益水

壯火 益聽明目

中極 : 任脈 膀胱募穴 足三陰經與任脈之會穴 培元助氣化 調血室 溫精宮 清利濕熱 利膀胱理下焦

關元 : 任脈 小腸募穴 足三陰與任脈之會穴 三焦之氣生穴 培腎固本 補益元氣 回陽固脫 溫調血室精宮 祛陰寒濕陰冷 分清別濁 調元散邪

2) 失精 精溢. 中極 大赫 然谷 大衝 等穴 皆主之.

中極 : 任脈 膀胱募穴 足三陰經與任脈之會穴 培元助氣化 調血室 溫精宮 清利濕熱 利膀胱 理下焦

大赫 : 少陰腎 足少陰腎經與衝脈之會穴

然谷 : 少陰腎 榮火 陰蹻脈之所生處 退腎熱 疏厥氣 理下焦

大衝 : 厥陰肝 俞土 原 清息肝火肝陽 疏泄下焦濕熱 舒肝理氣 通絡活血

3) 虛勞失精 宜取 大赫 中封.

大赫 : 少陰腎 足少陰腎經與衝脈之會穴

中封 : 厥陰肝 經金 疎肝通絡

4) 遺精五藏虛竭 灸曲骨端一穴 四七壯穴在前陰橫骨中央 曲如月中央是也.

曲骨 : 任脈 足厥陰肝經與任脈之會穴

5) 便濁 失精 取腎俞.

腎俞 : 太陽膀胱 腎俞 滋補腎陰 振氣化 祛水濕 強腰背 益水 壯火 益聽明目

6) 夢泄精 取三陰交各灸二七壯 神效.

三陰交 : 太陰脾 足三陰經之會穴 陰陽二總穴 補脾土 助運化 通氣滯 疏下焦 調血室精宮 祛經絡風濕

2. 氣門

1) 一切氣疾 取氣海.

氣海 : 任脈 調氣益元 培腎補虛 和營血理調經 溫下焦 祛濕振陽固精

2) 氣逆 取尺澤 商丘 太白 三陰交.

尺澤 : 太陰肺 合水 泄肺熱 降逆氣 清上焦之熱

商丘 : 太陰脾 經金 健脾胃 化濕滯

太白 : 太陰脾 俞土 原 通經活絡 助脾和胃

三陰交 : 太陰脾 足三陰經之會穴 陰陽二總穴 補脾土 助運化 通氣滯 疏下焦 調血室精宮 祛經絡風濕

3) 噫氣上逆 取太淵 神門.

太淵 : 太陰肺 俞土 原 脈會穴 祛風化痰 理肺止咳止痛 清肅上焦肺氣

神門 : 少陰心 俞土 安心寧神 清化涼營 清心熱 調氣逆

4) 短氣 取太陵 尺澤.

太陵 : 厥陰心包 俞土 原 十三鬼穴 清心寧神 和胃寬胸 清營涼血

尺澤 : 太陰肺 合水 泄肺熱 降逆氣 清上焦之熱

5) 少氣 取間使 神門 太陵 少衝 足三里 下廉 行間 然谷 至陰 肝俞 氣海.

間使 : 厥陰心包 經金 調心氣 清神志 和胃祛痰 通經治絡

神門 : 少陰心 俞土 安心寧神 清化涼營 清心熱 調氣逆

少衝 : 少陰心 井木 開心竅 清神志 勞厥逆 泄邪熱

足三里 : 陽明胃 合土 六腑下合穴 四總穴 中風七處穴 理脾胃 調中氣 和腸消滯 祛風化濕 通調經絡 調和氣血 扶正培元 祛瀉防病 強健脾胃

下巨虛 : 陽明胃 小腸下合穴

行間 : 厥陰肝 榮火 泄肝火涼血熱 清下焦 熄風陽

然谷 : 少陰腎 榮火 陰蹻脈之所生處 退腎熱 疏厥氣 理下焦

至陰 : 太陽膀胱 井金 疏癩頂風邪 清頭明目 宣下焦氣機 矯正胎位

肝俞 : 厥陰肝 背俞 補營血 消凝疼 除肝膽濕熱 能寧神明目

氣海 : 任脈 調氣益元 培腎補虛 和營血理調經 溫下焦 祛濕振陽固精

太陵 : 厥陰心包 俞土 原 十三鬼穴 清心寧神 和胃寬胸 清營涼血

6) 上氣 灸太衝. 氣結 食不消 灸太倉. 冷氣臍下痛 灸關元100壯. 短氣 灸大椎 隨年壯 短氣 灸大椎 隨年壯 肺俞百壯 神闕二七壯 又灸第五椎下 隨年壯.

太衝 : 厥陰肝 俞土 原 清息肝火肝陽 疏泄下焦濕熱 舒肝理氣 通絡活血

中脘 : 任脈 胃之募穴 腑會穴 和胃氣 化痰滯 利中焦 調升降

關元 : 任脈 小腸募穴 足三陰與任脈之會穴 三焦之氣生穴 培腎固本 補益元氣 回陽固脫 溫調血室精宮 祛陰寒濕陰冷 分清別濁 調元散邪

大椎 : 督脈 手足三陽經與督脈之會穴 消風散寒 解表通陽 理氣降逆 鎮靜安神與健腦

肺俞 : 膀胱經 肺俞穴 調肺氣 補勞損 清虛熱 和營血

神厥 : 任脈 溫通元陽 勞脈固脫 運腸胃氣機 化寒濕積滯

7) 短氣 取天井 大椎 肺俞 肝俞 魚際 尺澤.

天井 : 少陽三焦 合土 化經絡痰濕 疏三焦氣火

大椎 : 督脈 手足三陽經與督脈之會穴 消風散寒 解表通陽 理氣降逆 鎮靜安神與健腦

肺俞 : 膀胱經 肺俞穴 調肺氣 補勞損 清虛熱 和營血

肝俞：厥陰肝 背俞 補營血 消凝痰 除肝膽濕熱 能寧神明目
魚際：太陰肺 榮火 疏肺和胃 利咽喉 清血熱
尺澤：太陰肺 合水 泄肺熱 降逆氣 清上焦之熱

8) 氣亂于心 取神門 太淵，氣亂于肺 取魚際 太谿，氣亂于腸胃 取太白 陷谷 足三里，氣亂于頭 取天柱 大杼 通谷 束骨，氣亂于臂脛 取二間 三間 內庭 陷谷 液門 中渚 俠谿 臨泣。

神門：少陰心 俞土 安心寧神 清化涼營 清心熱 調氣逆
太淵：太陰肺 俞土 原脈會穴 祛風化痰 理肺止咳止痛 清肅上焦肺氣

魚際：太陰肺 榮火 疏肺和胃 利咽喉 清血熱
太谿：少陰腎 俞土 原會陽九鍼穴 滋腎飲 退虛熱 壯元陽 理胞宮 強健腰膝

太白：太陰脾 俞土 原通經活絡 助脾和胃
陷谷：陽明胃 俞木
足三里：足陽明胃 合土 六腑下合穴 四總穴 中風七處穴 理脾胃 調中氣 和腸消滯 祛風化濕 通調經絡 調和氣血 扶正培元 祛瀉防病 強健脾胃

大杼：太陽膀胱 督脈之別絡 手太陽小腸經手少陽三焦經足太陽膀胱經與足少陽膽經之骨會 祛風邪 解表退熱 舒筋脈 調骨節
天柱：太陽膀胱
足通谷：太陽膀胱 榮水 消導經氣
束骨：太陽膀胱 俞木

二間：手陽明大腸 榮火 散邪熱 利咽喉 清熱消腫
三間：陽明大腸 俞木 泄邪熱 利咽喉 助肺氣
內庭：陽明胃 榮水 通降胃氣 和腸化滯 理氣鎮痛
陷谷：陽明胃 俞木
液門：手少陽三焦 榮火 消火散熱 清頭開竅
中渚：少陽三焦 俞木 疏少陽熱 解三焦邪熱 開竅益聽
俠谿：太陽小腸 輸木 督脈交會 寧心安神 清熱利濕 通督脈

固表分
足臨泣：少陽膽 俞木 帶脈交會 八脈交會穴 清火熄風 明目聽耳 疏肝膽氣滯 化痰熱 阻逆

고찰

精은 몸을 구성하는 근본이며, 주요 요소이다. 五臟六腑에 간직되어 기본적인 에너지처럼 쓰이고 최종적으로는 腎에 저장되어있다.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일정한 양에 후천적인 五穀에 의해 보충되어 쓰이기만 하고 넘쳐나지 않는다.¹⁵⁾ 그러므로 모아야 하지 새나가거나 써 버릴 때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문의 병증을 살펴보면 遺精, 夢泄, 失精 등 새는 병들 위주이다. 遺精이나 夢泄 혹은 失精 모두는 사실 같은 내용의 증상이다. 만일 새더라도 기력이 왕성하여 저절로 넘치는 것은 마치 병에 물이 차서 넘치는 것과 같으므로 치료할 대상이 아니지만, 五臟六腑가 온전하지 못하여 새는 것은 금이 간 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으므로 중한 상태이다.⁷⁾ 정기의 병변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遺精, 夢精, 滑泄, 白淫 등 정기의 固攝機能 저하로 인한 것, 酒色過度, 七情, 火熱病으로 인한 정기의 內渴과 濕熱, 血瘀, 痰飲에 의

한 정기의 汚濁으로 인한 병변 등으로 볼 수 있다.¹⁶⁾ 그러한 면에서 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固攝機能의 저하로 인한 것은 精科에게 해당할 것이고, 정기가 내갈 된다는 면에서는 神科에 해당한다.

또한 인체에서 정을 쓰는 것은 주로 남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남자들은 활동이 많은데다 射精을 하므로 정을 직접 쓰게 된다. 그러므로 정문에 나타난 생리와 병리적인 문제들은 形象論적인 대상에서 대부분이 남성들에 대한 내용이다.

정문에서는 주로 背俞穴들이 많이 쓰였고, 그 외에 中極, 關元, 曲骨 등의 任脈과 足少陰腎經의 大赫, 然谷과 足厥陰肝經인 太衝, 中封, 足太陰脾經이면서 足三陰經이 교회하는 三陰交穴이 쓰였다. 背俞穴들은 주로 腎俞와 心俞 위주이다. 背俞穴의 위치는 비록 足太陽膀胱經상에 위치하지만 이들의 주치는 주로 직접적인 장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

“精을 간직하는 것은 腎이 주관하고 내보내는 것은 肝이 주관한다. 이 두 장기에는 모두 相火가 있고 그 줄이 위로 심에 속해있다. 심은 君火다. 사물에 감응하면 동하기 쉽다. 심이 동하면 相火도 동하고 相火가 동하면 정액이 저절로 나온다”⁷⁾라고 한다. 즉 정이 새는 것은 心, 肝, 腎이 모두 작용하여서 발생한다.

1번에 보면 背俞穴 중에 心俞와 膏肓俞는 부위로 보았을 때, 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白環俞와 腎俞는 신과 연관이 있다. 中極과 關元은 혈자리의 특성상 氣를 보충해 주는 혈이므로 生氣의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심과 신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쓰이는 자리라 생각이 된다. 심과 신이 조화되지 못하고 교류가 안 되어 생기는 遺精에 쓰일 수 있다. 심과 신은 수와 화의 교류처럼 상하로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대상을 생각해 볼 때, 神科는 화가 위로 잘 뜨는 형상적 특성이 있다. 화가 위로 잘 뜬다는 말은 아래에서 수가 힘이 없어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런 특성이 심신교류가 안 되는 상황이나 神科가 遺精의 증상이 생기면 이와 같은 혈의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번과 3번에서는 혈자리의 선택이 조금 달라진다. 다른 혈은 足少陰腎經이지만 1번과 달리 心經에 해당하는 혈이 없고 大衝, 中封 등이 쓰인 것으로 보아 心보다는 腎과 肝에 초점이 맞다. 즉 1번이 心腎의 문제라면, 2번과 3번은 肝腎의 문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1번과 비교해 보았을 때 肝, 腎이 精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한 경우라 한다면 精科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는 心과 肺가 上焦에 있고, 肝과 腎이 下焦를 반영한다면 下焦가 발달하지 못한 形象인 下觀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을 고려해 볼 때 神科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4번과 5번은 任脈의 曲骨穴을 선택하거나 俞穴중에서 腎俞穴이 쓰인 경우다. 曲骨은 위치상 陰莖과 가깝고 任脈과 腎經의 특성이 비슷하므로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精을 잡아두지 못하고 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精 자체만을 생각하므로 精科에 해당하는 취혈이라고 보아진다.

6번에서는 三陰交에 뜬다고 한다. 三陰交는 足太陰脾經인데, 足太陰脾經의 經絡적인 의미로 볼 때 울체되어 夢泄이 나타나는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다. “足太陰脾經은 울체와 관련되는 것이 태반이다. 그런데 서투른 의사들은 울체와 관련된다는 것을 모르고 단지 澀劑를 써서 精液이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만

한다. 그것을 막으면 막을 수록 울체가 더욱 심해져 병이 오히려 심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¹⁷⁾라고 綱目에서 인용했다. 三陰交는 足三陰 經絡을 모두 영향을 미치고 혈성을 보면 氣滯한 것을 푸는 성질이 있다. 즉 울체되어 夢泄이 생긴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의 운행이 잘 되지 않아 울체되기 쉬운 形象的인 사람은 氣弱이고 性情의 문제로 울체되기 쉬운 사람은 神科로 볼 수 있으므로 氣科나 神科인 사람이 울체되어 몽설이 생기면 三陰交로써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氣門의 병증은 氣가 모자라는 경우(少氣, 短氣)와 氣의 운행에 문제가 생긴 경우(氣逆, 噫氣, 上氣, 氣亂)로 대별할 수 있다. 기가 모자라는 것은 체력에 부치는 일을 하는 경우라든지 음식 섭취를 제대로 못했다는지 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또, 男女라는 대상을 고려해 볼 때는 남자는 기를 얻어도 흘리면서 살아가므로 기가 모자라기 쉽다. 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주로 여자들에게 많은데, 여자는 陰에 속해서 기를 얻으면 흘기보다 모으기를 위주로 해서 막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 여자는 七情의 문제가 남자보다 많고, 사려가 지나치는 데다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가 울체되기 쉽다.

形象論에서는 氣科의 형상을 한 사람이 기자체가 잘 운행되지 못하여 울체되기 쉬운 사람이라고 한다. 또는 神科는 七情에 예민하기 때문에 감정에 상하기 쉬워 울증이 쉽게 생길 수 있다. 인체의 경혈 중에서 氣海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기병에 두루 쓰일 수 있는 혈자리이다. 氣海는 任脈에 위치하며 下丹田자리이기도 하다. 下丹田은 精血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고, 生氣의 근원이 되는 자리이다. 五臟六腑의 근원이 되고, 12 經脈의 뿌리가 되며, 呼吸의 關門이고, 三焦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氣海나 關元 등 下丹田에 위치한 혈을 취하면 生氣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혈성상 氣海혈은 그 중에서도 기에 관계된 일체의 증상에 두루 쓰일 수 있다. 이 혈은 대상에 관계없이 기에 병이 들면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다.

기의 병증 중 운행상에 문제가 생긴 병증을 먼저 고려해 보면 氣逆, 上氣, 下氣, 氣亂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가 역하는 증은 배에서 기가 치밀어 올라 그 증상이 胸中에 나타날 수도 있고, 肺에 있을 수도 있고, 腸胃나 머리, 팔다리에서 각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화가 성한 것이고, 위기가 거슬러 오르는 현상이다. 上氣는 邪氣가 폐에 넘쳐나서 惡寒과 身熱 증상을 동반하면서 기가 위로 치미는 것으로 氣逆과 증상이 일부 비슷한 면이 있다. 트림(噫氣)이 생기는 것도 기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이고, 氣亂 또한 기가 문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운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류한다.

기를 만들고 운행하는 주요 장부는 脾와 肺이다. 장부에서 脾와 肺는 각각 飲食과 呼吸을 받아들여 기를 생성하고 또한 운행한다. 2번에서 기가 역하였을 때 手太陰肺經인 尺澤과 足太陰脾經인 商丘, 太白, 三陰交를 쓴 이유는 이러한 脾와 肺를 조절하려는 뜻이다. 尺澤은 肺經의 습혈이자 水혈로 肺氣가 위로 치밀어 오를 때 하강시키고, 상초에 열이 있을 때 식히는 성질이 있다. 太白은 脾經의 原穴로 虛實을 조절한다. 商丘는 주로 腸胃를 보하고 습한 것을 제거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三陰交는 脾經

뿐만 아니라 足三陰經이 교회하는 자리로 運化하는 혈성이 있다. 위의 조합을 보았을 때 商丘로서 中焦를 소통시키고, 太白과 三陰交가 脾胃를 조절하여 기를 조절하고 치밀어 오르는 기를 尺澤으로 마무리하니, 中焦가 막혀있어서 소통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야 할 기가 위로 치밀어 오르기 쉬운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上氣 때는 주로 땀을 뜨는데, 땀은 주로 오랜 병증에 쓰고 허약한 경우에 활용을 많이 한다. 이런 면에서 氣逆과 차이점을 고려해 보면 상기는 氣逆에 비해서 허한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太衝은 足厥陰肝經의 原穴로서 肝經에서 위로 치미는 증상을 제어하고, 경락을 소통시킨다. 四關이라하면 주로 合谷과 太衝을 쓰는데 肝經의 경락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의 太衝은 肝主疎泄하는 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기가 울체되어 소화 안 되어 기가 위로 뜨면 中焦를 통하게 하여야 한다. 任脈이면서 胃의 母穴인 中完穴을 사용하여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髃脈에 비해 任脈은 인신을 주관하고 음적인 부위에 있어 여자에게 많이 쓸 수 있는 경락이다. 形象論에서 여자는 많이 먹으므로 胃氣위주로 살아간다고 한다. 또한 남자는 기를 잘 흘는데 비해 여자는 氣鬱이 생기기 쉽다.¹⁷⁾ 위의 選穴은 任脈을 사용하고, 위를 고려하면서 기가 울체되는 경우를 봐서 여자에게 주로 이용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冷氣가 있어 배꼽아래가 아프면 關元을 쓴다. 關元과 氣海는 정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전자리에 위치하고 인체의 제반기혈을 다스린다. 특히 關元은 任脈이고, 小腸의 母穴이며, 足三陰經과 任脈이 모이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이 곳에 땀을 떠서 몸에 냉기를 제거한다.

아기는 手太陰肺經의 原穴인 太淵을 사용한 것 외에, 手少陰心經인 神門을 사용하였다. 트림은 心과 脾에 속한다. 太陰病이 위로 心에 가서 트림이 난다는 것은 陰이 성하면 위로 陽明에 가는데, 陽明經의 낙맥이 심에 속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트림이 난다는 것이다. 또한 心病으로 트림이 난다. 그러므로 太陰經을 치료하는데 足太陰과 手太陰은 같은 太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肺는 우리 몸의 덮개와 같은 장부로서 기운을 덮고 있는데, 이곳을 조절하여 기운을 열어 주면 온 몸의 기운이 퍼지게 된다. 그러므로 手太陰肺經의 原穴을 사용하여 기를 조절하였다. 또 噫氣는 心病이라 한 것처럼 심을 많이 사용하여 陽明胃經과의 조율이 잘 못 되면 트림이 잘 생긴다. 생각을 깊이 하면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神門穴은 安心寧神시키는 穴이고 동시에 氣逆을 조절하는 혈성을 가지고 있다. 氣弱이거나 사려가 많고 심을 많이 쓰는 神科의 사람을 그 대상으로 고려해 본다.

氣亂을 볼 때 이에 해당하는 증상은 기문의 氣逆조문에 나와 있다. 氣逆에 보면 흉중에서 문란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다. 肺에서 기가 혼란하면 몸을 숙일 때나 젖힐 때나 숨이 차서 손으로 폐를 누르고 숨을 내신다. 腸胃에서 혼란하면 癉亂症이 생기며, 팔다리에서 혼란하면 팔다리가 싸늘해진다. 머리에서 혼란하면 정신을 잃고 넘어지거나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 넘어진다. 心, 肺, 腸胃에 기가 문란할 때는 각각의 原穴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原穴은 장부를 대

표하는 혈로 특히 장부 자체의 문제일 때 일차적으로 쓸 수 있는 혈이다. 그리고는 각각의 증상에 부합하는 보조혈로 선혈을 하였다. 머리에 분할할 때는 모두 足太陽膀胱經을 썼는데 膀胱經은 발뒤꿈치를 지나 등과 뒷목을 타고 뒷머리와 앞머리를 통과하여 눈에 다다른다. 팔과 다리의 혈은 각각 부분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혈을 선택하였다. 혈을 선택함에 있어서 榮혈과 輸혈을 주로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榮혈은 發熱을 치료하고, 輸혈은 體重切痛, 風濕痺痛을 주로 치료해서 막힌 부분을 뚫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기병증에서 양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을 살펴보면 短氣症과 少氣症이 있다. 短氣는 기력이 부족하여 숨을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少氣는 기운이 약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少氣는 顛中이 약하거나, 肺와 腎의 기운이 적어져 생긴다. 여기서 보이는 혈들은 조금 더 연구할 여지가 있으나, 장부와 연관을 시켜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間使, 大陵穴이 顛中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혈이라면, 神門, 少衝이 더해져서 정신을 돕는다. 胃는 相通關係로 心包와 통한다. 足三里로 胃經을 보한다. 肝腎은 同原이므로 肝經인 行间, 肝俞를 쓴 것은 腎을 돕고, 膀胱經은 表裏 관계로 腎의 병일 때 자주 활용이 된다. 氣海는 生氣之原으로 일체 기의 병일 때 활용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맞는 혈들을 조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뚜렷하게 어떠한 대상을 놓고 썼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短氣에 쓰이는 처방구성은 3가지가 보인다. 첫 째, 4번에서 大陵과 尺澤을 취한 것이 있고, 둘째, 6번에서 肺俞와 大椎와 神厥을, 셋째, 7번에서 肺俞와 大椎, 天井, 肝俞, 魚際, 尺澤을 취한 것이 있다. 6번은 뜸을 뜬다. 短氣症은 기가 모자라지만 그 기전에는 정말로 기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 있고, 心下에 水飲이 차서 기가 제대로 소통이 못 되어서 위로 못 올라가 숨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다. 혈을 살펴보면, 大陵은 心包經의 原穴로, 心包經의 是動病에는 心澹澹大動이 있다. 즉 이 구성은 心包經에 水飲이 찬 것을 原穴로 치료하고 手太陰肺經의 合穴인 尺澤으로 痰飲을 본 경우이다. 이 두가지를 보건대 痰飲의 형증이 있는 대상이겠다. 痰飲의 형증이란 痰飲이 나타나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尺澤의 피부가 고기 비늘 같은 경우, 와잠이 회흑색이라든지 매핵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形象的으로 痰飲이 잘 생기는 형상은 남자가 여자같이 생겼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좌우 불균형이 심하게 틀린 사람을 들 수 있다.¹⁸⁾ 6번과 7번의 구성은 肺俞와 大椎가 있다. 大椎는 異名이 白勞인데 허로증상일 때 쓸 수 있다는 뜻이다. 肺經의 輸穴과 大椎, 게다가 神厥까지 쓰고 이것을 뜸으로 치료한 것으로 보아 말 그대로 기력이 약한 대상이라 볼 수 있다. 노인분이나 노동을 많이 한 경우 혹은 수술 후 체력이 회복 안 된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는 天井穴이 경락의 痰濕을 제거하고 大椎, 肺俞, 肝俞가 있어 기력이 약한 것을 동시에 고려한다. 魚際와 尺澤은 열을 제거하는 혈이기도 하고 인후부에까지 기운을 올리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목까지 기운을 올리는 처방을 둔 것을 참고로 해 볼 때, 앞의 두 경우와 동시에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목이 긴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발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쓰거나 의사에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形象論에서는 큰 것을 흠으로 보기 때문이다. 목은 몸통과 머리를 연결하는 길목으로 화가 지나가는 교차로이기도 하다. 평소 생각이 많거나, 화가 잘 동하는 사람은 목에 가래가 잘 낀다든지 이처럼 기운이 잘 안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런 短氣症은 목이 발달하거나 思慮가 많아 화가 잘 동하는 대상에게 어울리는 처방이다.

결 론

形象에 따른 경혈 선택의 연구 일환으로 동의보감 精門과 氣門의 침구 부분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精門의 침법은 정이 새는 병을 위주로 하며 이는 남자, 精科, 神科 등에 주로 나타난다. 유정 시 울체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기과와 神科의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 일체의 기병에는 氣海穴을 사용한다. 氣逆의 침법에는 中焦疏通이 잘 안 되는 사람을 고려했고, 上氣 때는 허약하거나 여자의 대상을, 噎氣는 氣鬱이 잘 생기는 氣科나 神科를 대상으로 침법을 해석할 수 있다. 氣亂 때는 각 부분의 原穴을 사용하였으므로 별 다른 형상적 특징은 보이지 않았다. 少氣 때의 혈자리 구성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 短氣의 구성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나는 痰飲에 의한 것으로 痰飲의 形症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氣力 자체가 허한 사람의 경우이다. 셋째는 목이 발달하거나 화가 잘 동하는 경우의 사람이다.

참고문헌

1. 임영철. 동의보감에 대한 의과학적 고찰. 지산학술상논문집 2(1):141-146, 2003.
2. 한경식, 박성식. 체질에 따른 침치료를 위한 문헌적인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3(3):8-14, 2001.
3. 최병일, 고병희, 송일병. 체질에 응용되는 침치료법에 대한 고찰. 상상의학회지 1(1):183-188, 1989.
4. 강경화, 김경철, 백근기, 이용태. 형상침법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5):1157-1176, 2003.
5. 최영성. 형상의학적 침치료에 대한 연구, 대한형상의학회지 5(1):485-525, 2004.
6. 김진수. 오행침의 체질운동. 서울, 전국의학사. pp 19-27, 2002.
7. 동의보감국역위원회.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pp 142-178, 1999.
8. 대한전통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7. 서울, 지산출판사. pp 71-72, 1996
9. 김경철, 이용태. 장부상통과 지산도표의 이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3):617-623, 2003.
10. 대한형상의학회 편, 지산형상의안. 지산출판사. pp 24-25, 2003.
11. 대한전통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3. 서울, 지산출판사. pp 168-170, 1996.
12. 대한전통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6. 서울, 지산출판사. p 19, 1996.

13. 대한전통의학회. 지산선생임상학특강 5. 서울, 지산출판사. p 78, 1996
14. 전국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침구학. 서울, 집문당. pp 299-757, 2000.
15. 석화준. 정에 대한 제질한의 형상의학적 고찰. 대한형상의학 회지 Vol, 3 No. 1 2002.
16. 박찬국. 병인병기학. 성보사. pp 400-401, 1992.
17. 구교성.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본 남녀. 대한형상의학회지 Vol. 4 No. 1, pp 482-483, 2003.
18. 조성태. 생긴대로 병이 온다. 명상. pp 302-305, 1998.